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의 텍스트 분석 (제2보) - 1980년대 이후 서구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

서승미[†]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The Text Analysis of Plasticity Expressed in the Modern Art to Wear (Part II) - Focused on the West Art Works since 1980s -

Seung Mi Seo[†] · Sook Hi Y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11. 18. 접수)

Abstract

The analysis category of Art to Wear was text analyzed from the research material of 100 projects put together by fashion specialist. The conclusion of Art to Wear was comprehended the general features of it we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a semiotics context.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formative features of modern Art to Wear is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dimensions from a semiotics light. The formative features of modern Art to Wear in the light of syntactic dimension was divided as an open constructed shape of Space Extension, non-typical Deformation, Geometrical Plasticity. The formative features of modern Art to Wear in the light of semantic dimension express symbolic meaning through metaphorical sign. These sign reflect the body image of the life and death and its objective of Abjection, Hybrid of discultural appearance and the image of Hyper-reality, which are features used to comprehend the inner meaning. The formative features of modern Art to Wear in the light of pragmatic dimension divided the artist emotion and meaning system delivered by Emotive Image, the Phatic Image that arouse inner signification and the Poetic Image which contain artistic and aesthetic meaning within it.

Key words: Art to wear, Semiotics, Signification, Text analysis; 예술의상, 기호학, 의미작용, 텍스트 분석

I. 서 론

본 연구는 <제1보>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용분석 방법인 텍스트 분석을 사용하여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예술의상의 일반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Charles Morris의 기호과정에 의한 세 가지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의 조형성을 도출함으로써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을 위한 분석 범주는 <제1보>에서 논의된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조형 기호학의 텍스트 내용을 구성하는 의미의 단위들을 분석 범위로 설정한다. 분석 자료는 예술의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던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서구 예술의상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 전시회와 작품집, 인터넷 사이트에 제시된 사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100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하여 현재 구축되지 않은 예술의상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대 예술의상의

[†]Corresponding author

E-mail: k0032032@sookmyung.ac.kr

조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호 상징체계로서 가시적 표상체계의 한 부분인 예술의상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유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II. 현대 예술의상의 텍스트 분석

1. 분석 방법과 내용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예술의상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한다.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인 텍스트 분석은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와 통계활용 등을 통하여 정량적(quantitative)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다.

분석 자료는 예술의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 전개되던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서구 예술의상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그들의 작품 전시회와 작품집, 인터넷 사이트에 제시된 작품사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자료의 선정 기준은 예술의상의 구성요건과 표현형식을 지닌 분석 타당성이 있는 작품으로서 작품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위해 패션 전공 교수 5인에 의해 100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분석 대상의 작가 선정기준은 작품 전시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구의 대표적인 예술의상 작가를 선정하였다. 또한 미술 전시장이나 박물관에서 그룹전과 개인전을 개최하여 작가의 이념을 특수기법으로 표현한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예술 작품도 포함시킨다. 본 연구는 최근에도 의상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예술의상 작가로 Azzedine Alaïa, Barbara Graf, Beverly Semmes, Charles LeDray, Emily Bates, Fabrice Langlade, Fergus Greer, Gotscho, Inge Stahl, Issey Miyake, Jan Fabre, Jana Sterbak, Jean Charles Blais, Judith Shea, Lesley Dill, Valérie Belin 등의 예술의상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2) 분석 내용

기호학적 관점에서 예술의상의 일반적 특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되며 각 차원에 의한 텍스트의 분석 범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사론적 차원에서 텍스트 분석 범주는 위상 범주,

형태 범주, 색채 범주로 분류하였다. 위상 범주는 위치 구성과 방향 구성, 공간 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형태 범주는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로, 색채 범주는 유사 색상과 대조 색상으로 범주화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의미론적 차원에서 텍스트 분석 범주는 외연 의미와 내포 의미로 분류하였다. 외연 의미는 은유 이미지와 환유 이미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내포 의미는 삶/죽음 이미지, 자연/문화 이미지, 신성/인성 이미지, 동일성/이타성 이미지로 범주화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실용론적 차원에서 텍스트 분석 범주는 전달적 기능과 공유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전달적 기능은 정서적 기능, 사역적 기능, 지시적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공유적 기능은 시적 기능, 교감적 기능, 메타언어적 기능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세 가지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을 텍스트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 범주의 내용을 각 차원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기술통계 방법에 의해 계량화하였다. 각 차원에서 나타난 분석범주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통사론적 차원의 일반적 특성

(1) 위상 범주

위상 범주에서 나타난 공간 구성은 62%로 가장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형태는 신체 영역을 외부로 확장시켜 극단적인 형태를 가시화 함으로써 공간개념에 대한 새로운 미의식을 상대적인 공간으로 확장 전환하였다. 즉 전체적인 형태에 의미를 제시하는 구성형태로서 작품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며 공간확장으로 인한 조형적인 형태와 위치배열을 통해 유기적인 형태가 재창조되었다. 설치 예술의상에서는 작품의 조형요소 자체와 형태구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개방된 공간구성의 역동적인 확장을 형성하였다.

시공간 속에서 움직임을 재구성하는 방향 구성은 작품형태의 구성요소를 강조하여 시각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데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시선의 진행 방향은 완성된 조형요소의 방향 구성에 따라 변화된 형태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위치 구성은 조형요소의 위치배열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추상적인 조화를 창조하는데 예술의상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위상 배치의 변화된 구성은 위치관계에 따라 추상적인 조형적 환경을 연출하였다. 작품형태 구성상 다양한 조형요소의 배치는 시각적 운동으로 인한 생동감 있는 초월적 영역으로 그 의미가 전환된다.

(2) 형태 범주

형태 범주에서 나타난 기하학적 형태는 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유기적 형태는 비교적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특히 기하학적 형태에서는 형태 파괴와 과장, 왜곡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작품 형태는 정형화된 조형적 구성요소를 파괴하는 기하학적 형태로서 모호한 형태 변형을 통해 불확정적인 형태 구성을 보인다.

이처럼 추상적인 상징미학을 제시하는 기하학적 형태는 인위적이며 구조적인 형태 구성을 통해 불확정적인 형태 파괴와 과장되고 비정형화된 신체의 왜곡된 표현으로 조형적인 이미지를 재창조하였다.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이러한 불규칙한 형태 왜곡은 미완성의 불확실한 원리를 제시하며 순수 형태의 기하학적 추상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인공적인 기하학의 구성체계를 창조적인 조형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자연의 조화로운 감성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유기적 형태는 연속과 반복, 리듬의 심미적인 조형 요소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영감을 순수한 조형형태로 표현하였다. 작품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하여 순수한 조형적 리듬감을 표현하는 이러한 구성형태는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조형언어로 제시하였다.

(3) 색채 범주

색채 범주는 유사 색상이 57%의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색상 요소간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구성요소의 형태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유사 색상의 조화로운 구성은 전체적인 이미지 효과를 감각적으로 제시하며 작품의 상징적인 형태 구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새로운 의미체계를 가시적으로 전달하였다.

대조 색상의 극적인 색상대립은 형태 구성상의 경계 구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작품에서 연출되는 시각적 불일치를 더욱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였다. 특히 상반된 조형요소의 명백한 색상대비는 예술의상 작품에 있어 의미의 존재 가치를 더욱 극대화

시켜 함축된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전환시킨다.

2) 의미론적 차원의 일반적 특성

(1) 외연 의미

외연 의미에서 은유 이미지는 62%로 환유 이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은유 이미지는 특정한 대상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여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연상에 의한 무의식적 경험을 현실과 결합시키는 상징적인 투영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유사관계에 근거한 비유로서 은유는 연상법칙에 따라 보다 가공적이고 초현실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현대 예술의상에서는 기호로 표현된 지시대상이 상상의 초현실적 현상이나 단순화된 신화로 재현되면서 은유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비언어적 기호로서 이러한 시각적 표상은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의미전달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이시킨다.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환유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의해 그것과 연결된 나머지 부분을 연속법칙에 의해 통합적으로 재현시키는데 이는 객관적인 현실과 주관적인 환상의 세계 사이에서 연속적인 의미작용을 일으킨다. 현실적인 의식의 실체로부터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내면까지 연관되어 있는 환유 이미지는 예술의상에 있어 작가 내면의 의식세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한다.

(2) 내포 의미

내포 의미에서 삶/죽음 이미지는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성/이타성 이미지가 30%, 신성/인성 이미지가 22%의 빈도로 나타났다. 예술의상에서 나타난 삶/죽음 이미지는 비천하고 공포스런 신체 이미지를 다층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모호한 경계로부터 야기되는 주체성의 불안정함과 완전치 못한 존재성으로 인해 시각적인 충격을 준다. 특히 비정형화된 여성의 왜곡된 신체 이미지는 공포를 불러일으켜 삶과 죽음의 경계개념을 위협하며, 여성의 신체를 성적 소모품으로 대상화하여 비천한 신체 이미지를 공포스런 삶과 죽음의 주체로 재현하였다. 예술의상에 표현된 이러한 이미지는 혐오스런 곤충이나 신체의 일부뿐인 머리카락과 같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대상화된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예술의상에 표현된 동일성/이타성 이미지는 서로 다른 의미 범주의 체계가 상징적으로 표현되면서 이

넘적인 의미작용을 일으킨다. 다양한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는 상반된 미적 가치의 사상이 공존의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미적 개념이 제시되었다.

신성/인성 이미지는 예술의상에 표현되는 내적 의미의 차원에서 신과 인간, 육체와 정신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미체계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예술의상에서 나타난 초월적인 상징성은 상상계를 실제로 제시하는 신성화된 사물의 재현으로 초현실적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표상되었다.

3) 실용론적 차원의 일반적 특성

(1) 전달적 기능

예술의상은 조형적인 특성상 작가의 감정과 이념, 정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서적 기능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감정표현을 위해 중요한 기능적 요소의 한 부분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예술의상 작품에서는 조형적인 형태 구성이나 특수한 소재를 사용하여 창조함으로써 작가의 감정과 이념을 감상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정서적 기능은 63%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가의 이념을 의미체계로 제시하여 모호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며 이러한 형태는 기호 상징체계로서 이미지가 창출된다. 신비롭고 상징적이며 미래적인 의미요소의 기호체계는 작가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하여 의미작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다.

지시적 기능은 실제 현실을 나타내는 기능으로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미전달을 위해 지시대상과의 관계를 확립한다. 예술의상에서는 작가가 의도하는 개념적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강조하여 의미체계를 전달함으로써 지시적 기능이 실현되었다. 이처럼 작품에서 표현된 사실적 묘사는 현실을 나타내는 지시적 기능을 전달하며 극단적인 이미지의 표현으로 반증적 미의식과 시각적인 충격을 연출한다.

(2) 공유적 기능

공유적 기능에서 교감적 기능은 44%, 시적 기능은 42%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예술의상에서 상호 교감된 기호 상징체계는 어떤 즉흥적인 조형물의 제시로 인해 공유되기도 하는데 절대적인 공간에서 실현되는 이러한 기능은 감상자에게 심리적인 공감을 유발시켜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한다.

또한 예술의상은 작가와 감상자 사이의 물리적, 심

리적인 공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데 여기서 교감적 기능은 작품의 의미체계를 상호 교감함으로써 내적 의미작용이 공유된다. 예술의상에서 교감적 기능은 실제와 가상세계를 통해 시공간의 영역을 확장하며 초월적 현상을 체험하게 하여 작품의 의미체계를 교감하게 한다.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시적 기능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미학적인 기능으로서 예술의상에서 공유되는 심미적인 미적 가치는 기호체계의 의미작용으로 실현되어 감상자에게 시적 기능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예술의상은 새로운 의미체계를 형성하여 작가의 내면세계를 공유하게 하는데 이러한 기호의 시각적 연출효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미학적 기능을 제시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 현대 예술의상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사론적 차원에서 분석된 예술의상의 특징은 공간 개념의 새로운 신체 영역확장을 통해 공간 구성이 창출되었으며 이러한 위상 범주의 구성형태는 기하학적 형태의 추상적인 형태 파괴와 신체 왜곡, 과장된 형태의 변형과 함께 조형적 형태가 창조되었고 색채 범주에서는 유사 색상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통사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을 개방된 구성형태의 공간 확장과 비정형적인 형태 왜곡, 과장된 기하 조형의 형태 구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의미론적 차원에서 분석된 예술의상의 특징은 삶과 죽음 이미지, 동일성과 이타성 이미지, 신성과 인성 이미지 등의 내면적인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연상되는 은유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의미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은 상징적인 의미를 은유적인 기호로 표현하는 삶과 죽음으로 대상화된 신체 이미지의 애브젝션과 탈 문화적인 현상의 하이브리드, 초 실제의 파생 실제로 범주화하였다.

실용론적 차원에서 분석된 예술의상의 특징은 작가에 의해 정서적 기능을 통해 의미작용이 전달되었으며 또한 교감적 기능과 시적 기능의 표현방법으로 인해 감상자에게 상징적인 의미체계가 공유되었다. 따라서 실용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을 작가의 감정과 이념의 의미체계를 전달하는 정서적 이미지와 내적 의미작용을 공감시키는 교감적 이미지 그리고 미학적 기능의 심미적 표현을 공

유하게 하는 시적 이미지로 범주화하였다.

III.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

본 장은 앞에서 논의된 텍스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Charles Morris의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세 가지 차원, 즉 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실용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의 조형성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사론적 차원의 예술의상

1) 공간 확장 (Space Extension)

공간 확장은 공간을 체험하는 인간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장은 개방적인 형태를 가지며 그 내부의 핵을 중심으로 3차원의 방향, 혹은 보다 많은 차원으로 나가려는 물리적 상황을 말한다(정현식, 2000). 따라서 내부는 외부로 확장되고 중심 공간은 주변으로 보내져 공간 역할은 더욱 확장된다.

이러한 공간 확장 개념의 현대 예술의상은 모든 경계의 내파(implosion)와 전자 테크노 기술에 의해 확장된 신체를 중심으로 탈 육체화를 시도하며 요소를 분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디지털 신체의 새로운 기계 합성물을 제시한다. 따라서 외부로 확장되는 가상의 신체 이미지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존재성을 개방된 공간구성으로 확장시켜 가상세계를 통한 내면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공간 확장은 공간 개념의 변화로 인해 시공간의 영역을 새롭게 확장하는데 이는 공간의 긴장된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체적인 구성형태의 의미체계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한다. 공간 구성의 설치작품 형태인 <Fig. 1>은 주체와 객체가 공존하는 경계 상에서 신체의 부재를 통해 전체적인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호체계로서 여성의 거대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몸의 재현성에 대한 부정은 탈 육체화를 통해 신체의 존재에 대한 거부를 제시하는데 탈 신체를 표방하는 과장된 형태의 평면적인 작품들은 신체 담론을 확장된 공간 속에서 상징적으로 재현하여 다의적인 의미체계를 시각적으로 표상한다.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예술의상의 조형적 형태는 공간 구성으로 재구성되어 시공간의 자유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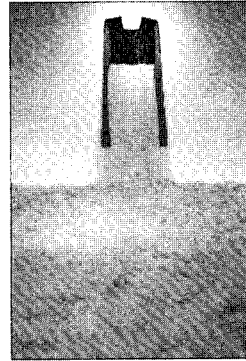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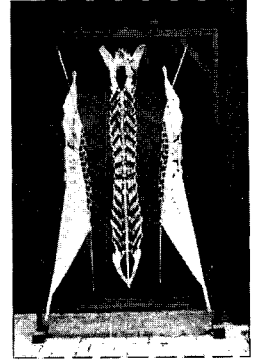


Fig. 2

Fig. 1. Semmes, B. 1996, *Art/Fashion*, p.39.

Fig. 2. Graf, B. 1996, www.a-matter.com

상호관입이 가능한데 이는 절대적인 공간 속에서 상대적인 공간으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Barbara Graf는 <Fig. 2>에서 해부학적으로 재구성된 신체의 영역을 외부로 확장시켜 새로운 의미체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개방된 공간 구성의 변형된 신체 이미지는 형태와 공간 사이의 역동적인 확장을 형성하여 인간의 존재가치를 시각적으로 대상화한다.

2) 형태 왜곡 (Deformation)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형태 왜곡은 남성적 담론에 의해 정의된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형태를 비분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탈 고정화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표출한다. 정형화되지 않은 신체의 기형적인 표현은 신체를 왜곡하거나 변형하여 신체 이미지의 탈 정형화를 유도하는데, 이러한 신체적 일탈을 통한 불안감과 공포감은 의상의 조형적인 형태를 통해 기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해체를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상징적인 의미체계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전통적 담론에 의한 이상적인 신체 개념을 해체하는 이러한 형태구성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여 신체를 구조물로 인식하고 의상을 조각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열린 사고의 개방된 형태 변형을 무질서하게 충격적으로 제시한다. <Fig. 3>은 인공적인 형태 구조물에 의해 신체의 조형미를 왜곡하여 새로운 기호체계의 공간을 연출하였는데, 이는 구조적인 불확정성이나 모호함을 내포하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체계를 극단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신체의 탈 장르적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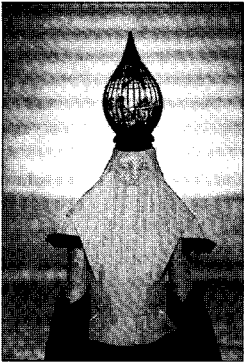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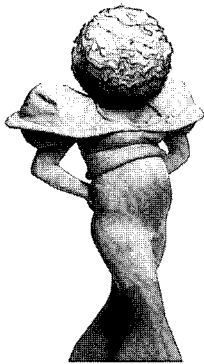


Fig. 4

Fig. 3. Givenchy, 1997, www.firstview.com
 Fig. 4. Greer, F. 1991, Addressing the Century, p.76.

과 불확정적인 추의 형식원리는 기형적인 신체변형의 왜곡된 조형적 형태로 시각적인 불균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일탈로서 여성의 신체 담론을 무질서한 형태 왜곡으로 재현한다.

이와 같이 현대 예술의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비구성적인 신체 왜곡은 유동적이며 비정형적인 형태를 통해 조형적 구성요소를 창조하는데 이러한 형식적 구조는 기형적인 형태를 유발하며 열린 공간 구성에 의한 유연성과 중첩으로 신체의 형태 개념을 해체하여 불확정적인 심미적 외형을 재구성한다.

예술의상에 있어 새로운 형태 공간의 조형적 구성요소들은 전 존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부의 반대적인 미시적 저항 현상을 기호화시켜 인공적으로 노출하거나 외형을 혼란시킴으로서 기존의 정형화된 조형 형식을 왜곡하여 황폐화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예술의상은 신체의 일부분이 변형, 왜곡되어 비정형의 신체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기괴한 형태 구성을 창출한다.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기형적인 신체의 왜곡된 형태 변형은 육체적 양식의 탈 고정화를 통해 신체 이미지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를 제시함으로써 비정형적인 형태 구성을 의미체계로 대상화한다. Fergus Greer는 그의 작품 <Fig. 4>에서 왜곡된 형태의 기괴한 신체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연출하여 내면의 의미체계를 가시적으로 표상하였다. 다원적이고 의미의 모호성을 내포하는 이러한 신체 왜곡은 상징적인 추의 미학으로 재현되어 인공적인 심미적 외형을 극단적으로 재구성한다.

3) 기하 조형 (Geometrical Plasticity)

현대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기하학적 형태의 조형 이미지는 인공적인 기하미학의 가장 순수한 조형 형태로서 단순하고 명쾌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객관적이며 은유적인 형태의 조형은 인체를 기하학적 형태로 제시하며 공간구성의 실험적인 구성체계를 통해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창출한다.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 기하미학은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영원성을 가진 심미적 형태로서 창조적인 원천의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예술의상은 순수 형태의 기하학적 추상을 형태화하여 창조적인 조형방식을 추구하며 모든 재현적 요소를 거부하고 회화적인 공간으로 대상을 분해하여 새로운 기호체계를 전개한다.

우연성이나 열린 개념에 의한 기하학적 형태의 예술의상은 새로운 가능성과 의외의 창조성을 지니는데 입체적인 구조로서 추상적인 형태의 기하조형은 신체와 일치되지 않는 3차원적 공간 속에서 비구조적인 실루엣을 형성한다. <Fig. 5>는 자유로운 형태의 기하조작으로 입체적인 기하학적 구조의 예술의상으로 표현되었는데, 작품에서 비행접시를 상징하는 추상화된 조형요소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기호매체로서 심미적인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인공적인 기계미학의 추상적인 형태구성은 인간 자체를 물질로 대상화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를 상실시키는 내재적 상징요소로서 신체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한다.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논리적인 미의식으로 승화시키는 심미적인 예술의상은 초월적인 상징성을 의미전달 하는 추상적인 형태로서 시각적 기호요소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새로운 동적인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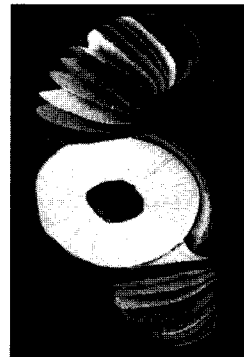


Fig. 5. Miyake, I. 1994, Issey Miyake, p.66.

듬과 비중심적인 자유로운 형태는 요소를 분해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구속된 공간을 확장으로 전환하며 시각적 외형을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성으로 변화시켜 순수한 조형미에 최상의 의미체계를 부여한다.

2. 의미론적 차원의 예술의상

1) 애브젝션 (Abjection)

Abjection은 비천하고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해 인간이 혐오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것을 탐닉하고 욕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상화되지 않은 비천한 신체, 결핍되고 소모된 육체를 표상함으로써 신체의 비천함을 다층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다(Kristeva, 1980).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abjection은 모호한 경계로부터 야기되는 주체성의 불안정함과 완전치 못한 존재성으로 인해 시각적인 충격을 주며 상징계라는 부계질서를 위협할 때 증속된 여성으로서 비천함이 표출된다.

Jana Sterbak은 <Fig. 6>에서 여성의 abjection을 표현하기 위해 식용고기(flesh)를 기호매체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분해된 생고기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여성을 단지 남성의 성적 소모품으로서 식육과 관련시켜 표현하였으며 생고기를 여성의 신체와 동일시하여 비천한 존재로 대상화하였다(Rebecca, 2001). 여성의 고뇌와 구속을 의미하는 이러한 비천한 신체 이미지는 환유적으로 대상화되어 소모된 육체를 상징적으로 표상함으로써 내적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였다.

예술의상에서 abjection을 표현하는 소재는 이물질이나 징그러운 곤충, 생고기 혹은 머리카락과 같은 혐오스런 이미지의 일부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Jan Fabre의 작품 <Fig. 7>은 의상조각의 유형으로서 설치미술의 성격을 지니는데, 수많은 곤충들이 뒤덮고 있는 이 작품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징그러운 곤충들에 의해 두려움과 함께 여성을 열등한 존재의 비천한 신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abjection 이미지는 억압된 상징 아래 존재하던 열등한 위치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의미체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상징계를 위협함으로써 경계를 교란시켜 여성성에 대한 담론을 기호로서 의미전달 한다. 죽음의 공포스런 외관을 통해 내적 의미를 상징하는 이러한 작품은 상실된 여성의 존재가치를 의도적으로 표출시킴으로서



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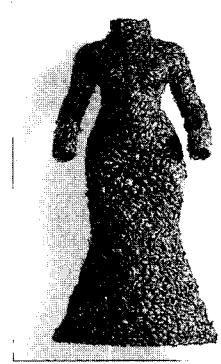


Fig. 7

Fig. 6. Sterbak, J. 1987, *Art/Fashion*, p.112.

Fig. 7. Fabre, J. 1993, *Art/Fashion*, p.213.

심리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2) 하이브리드 (Hybrid)

Hybrid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대립되거나 혼합되기 어려운 현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친근한 대상을 결합해서 제3의 충격적인 것을 만들기도 한다. 예술의상에서 나타나는 hybrid 현상은 서로 다른 감각의 공존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장르의 혼합 및 붕괴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현상은 상반된 미적 가치의 사상이 공존의 주류를 이루면서 새로운 미적 개념이 제시된다.

예술의상에서 hybrid 양상은 시공간적 절충주의의 복고성 개념으로 재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기호체계로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품 형태는 시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내재적 상징요소들을 역설과 대조로서 그 의미를 표출하는데 이런 절충적 현상은 공간의 긴장된 상호작용으로 인해 장르간의 공존을 유도하며 서로 다른 감각의 대립과 혼성으로 탈 구성적인 형태를 창출한다.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다양한 혼성 현상은 반증적 미의식이 합쳐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탈 장르, 탈 중심 현상을 함축하는데, 작품에서 대상물의 왜곡된 혼합과 의도적인 부조화의 배치는 미적 가치의 공존을 가시화하여 역설적인 탈 문화를 기호로서 의미 전달 한다.

전통적인 구성체계와 상반되는 장르간의 붕괴는 서로 다른 요소의 대립을 공존시키며 시공간의 절충적 혼합 현상을 가시화하여 의미체계를 함축적으로 표상한다. Gotscho는 <Fig. 8>에서 hybrid의 극단적



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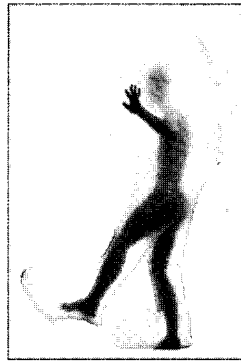


Fig. 9

Fig. 8. Gotscho. 1996, *Art & Fashion*, p.62.
Fig. 9. Maria, M. 2001, www.matter.com

인 공존양상을 새로운 가치체계로 제시하였는데, 이 작품에서 벽면에 걸린 사진 속의 인물과 신체가 부재된 평면적인 의상작품은 서로 교차되면서 동시적인 효과에 의해 새로운 의미요소가 창출되었다. 이처럼 작품에서 표현되는 상반된 문화적 위계구조의 전복은 다원적 정체성을 가시화하며 극단적인 역설로 내적 의미를 표상하여 모호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예술의상에서 보여지는 서로 다른 요소의 혼합과 왜곡된 조형적 특성은 기존의 문화적 질서를 해체하여 의미체계를 탈 구성적으로 대상화시킨다. 이와 같은 혼성 양상은 <Fig. 9>에서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극단적인 역설로 변형되어 기호요소를 의미적으로 함축함으로써 hybrid 양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상반된 요소들의 왜곡된 융합 현상은 반증적 미의식이 내재되어 탈 문화적 양상을 극대화된 담론의 텍스트로 제시한다.

3) 파생 실재 (Hyper-reality)

전의식의 정신세계와 가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파생 실재는 부재를 현전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상상을 실제로 드러냄으로서 인간 내면세계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체계를 기호학적으로 의미전달 한다. 즉 파생 실재의 예술적 원천은 무의식의 세계로서 억압된 인간의 내면적 영상을 추구하며 의식적인 시각과 무의식적인 꿈의 세계가 공존하는 환상과 공상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와 같이 초현실적 예술세계가 내재한 예술의상은 극 사실적인 꿈의 신비적 세계를 보여주며 실재와

허구와의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져 절대적 신비로서의 현존으로 탈바꿈한다. 즉 일상적인 현실세계에서의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 작가 내면의 정신세계를 인공적인 초현실적 감각으로 의미전달 한다.

예술의상에서 재현된 파생 실재의 가시화된 가상 정체성은 억압된 내면의 심리적 세계를 의미론적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미지는 인공적인 소재와 자연물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모조물로써 잠재된 무의식 세계를 시각적으로 의미전달 한다. 이처럼 초월적인 상징성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주체와 객체를 공존시킴으로서 인공미의 초실재적 형상으로 가상세계를 재현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존재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상하여 잠재의식의 세계를 기호학적으로 표출시킨다.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파생 실재의 이미지는 모조물들의 배치가 상식을 벗어나면서 감상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데, Barbara Graf는 <Fig. 10>에서 추상적인 형태로 구성된 인간의 척추(spinal column)를 기표로서 상징적으로 재현하였다. 이러한 이미지의 조각이나 은유적인 형태는 기호 상징체계로서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된 불안한 자아의식에 대해 극도의 공상과 환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이상세계를 제시한다. 이처럼 가상 신체의 역설적인 재현은 내면의 상징성을 은유적으로 암시하며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대상화하여 기호 상징체계로서의 미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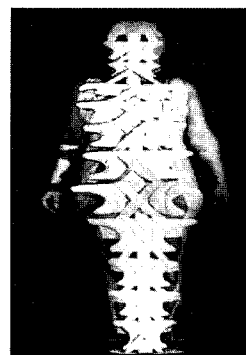


Fig. 10. Graf, B. 1996, www.a-matter.com

3. 실용론적 차원의 예술의상

1) 정서적 이미지 (Emotive Image)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정서적 이미지는 작가 내면

의 심리적인 감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내적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러한 내재적 상징요소들은 기호언어로 시각화되어 의미체계를 함축적으로 표상한다.

이와 같이 작가의 감성과 이념체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조형 형태는 기호 상징체계로서 의미작용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는데 이러한 작품은 <Fig. 11>에서 보여진다. Caroline Broadhead는 이 작품에서 불안정한 형태의 모호한 이미지를 통해 주체성을 상실한 종속된 여성의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존재 가치를 상징적으로 대상화하여 기호언어로서 의미전달 한다. 이처럼 작가는 여성의 존재 범주에 대한 위치의 불분명함을 상징적인 의미체계로 표출함으로써 정서적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현대 예술의상 작품은 형태 구성의 상징적인 재현을 통해 작품 내면의 역설적인 의미를 감성적으로 가시화하기도 한다. <Fig. 12>는 현 시대의 일시적인 강박관념과 인간의 삶의 흔적을 비현실적이며 모호한 형상의 기호체계로 제시하여 작가 내면의 상징적인 이념을 시각적으로 의미전달 하였다. 이와 같이 신비롭고 상징적이며 미래적인 의미요소의 기호체계는 신체의 역설적인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상하여 작가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예술의상에서 전달되는 의미작용은 가상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작가 내면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징적인 의미가 기호체계로서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품형태는 작가의 심리적 감성세계를 모호한 상징적 의미체계로 제시하여 정서적 기능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현대 예술의상에서 작가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극단적인 역설로 의미체계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 구성은 비현실적이며 역설적으로 변형된 기호언어로서 반증적인 미의식을 통해 작가의 심리세계를 표출함으로써 작품의 의미체계가 상징적으로 가시화 된다.

2) 교감적 이미지 (Phatic Image)

현대 예술의상에서는 기호매체를 통해 의미체계를 상호 교감함으로써 작가와 감상자 사이에 심리적인 연계가 작용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공유된 내적 의미작용에 공감함으로써 교감적 이미지가 생성된다.

Emily Bates는 <Fig. 13>에서 신체로부터 이탈된 머리카락(human hair)을 편물로 제작하여 죽음의 상징으로서 심리적인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는 과장된 형태구성의 예술의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품 형태는 전의식의 정신세계와 가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재현하여 작가 내면의 잠재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호 상징체계로서 존재 가치가 상실된 억압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인 공감을 교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기호매체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무의식적 차원에서 심리적인 공감을 유발시킴으로써 작품의 의미체계를 교감하게 한다. Azzedine Alaïa는 작품 《밴드, 1994》에서 인체 형상에 감겨진 밴드의 실체적 이미지를 통해 매장된 미이라(mummy)의 가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가시화하여 의미체계를 공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예술의상에서 표현되는 신체의 부재는 작가의 이념과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며 이러한 형태는 의미를 전



Fig.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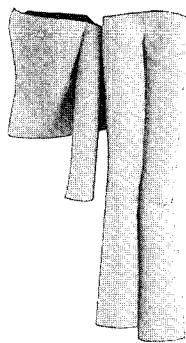


Fig.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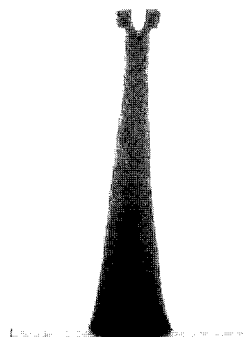


Fig.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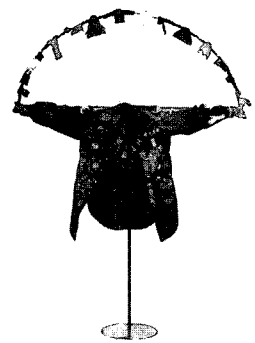


Fig. 14

Fig. 11. Caroline, B. 1992, Addressing the Century, p.62.
Fig. 12. Blais, J. C. 1997, Art & Fashion, p.24.

Fig. 13. Emily, B. 1994, Addressing the Century, p.99.
Fig. 14. LeDray, C. 1996, Art/Fashion, p.221.

달하는 기호체계로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상호 교감하게 한다.

예술의상 작품에는 시공간의 확장된 영역을 통해 실재와 허구와의 가상세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함으로써 내적 의미체계를 상호 교감하게 한다. Charles LeDray는 <Fig. 14>에서 인간을 상징하는 가상의 조형적 형태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공존하는 인간의 현실 세계를 상징적으로 연출하였는데, 이는 시공을 초월한 공간 확장으로 가상의 상징적인 의미작용을 공유하게 하여 심리적인 공감을 체험하게 한다.

3) 시적 이미지 (Poetic Image)

현대 예술의상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자체 내에서 미학적인 기호체계가 생성되어 심미적인 미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적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형 이미지는 미적 감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호체계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Fabrice Langlade는 <Fig. 15>에서 열가용성의 아교를 망사 형태로 만들어 번데기 유충(chrysalis)을 상

징하는 조형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신체의 부재를 은유적으로 제시하였다(Florence, 2000). 이와 같이 작품에서 표현된 심미적 가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시각적 효과에 의해 시적인 표현으로 의미작용된다.

미학적 기능의 상징적인 의미체계는 대상화된 기호언어를 통해 새로운 공간개념을 연출함으로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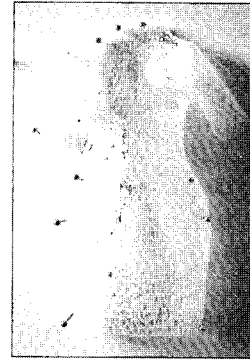


Fig. 15. Langlade, F. 1997, Art & Fashion, p.69.

<표 1> 기호학적 관점에 의한 현대 예술의상의 조형성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조형적 이미지
통사론적 차원	공간확장	공간개념의 변화로 신체영역이 외부로 확장 확장된 신체를 중심으로 탈 육체화 실재와 가상세계를 통한 시공간의 상호 관입	디지털 신체의 기계합성물 신체의 부재 해부학적으로 재구성된 신체 영역
	형태왜곡	신체 이미지의 탈 고정화와 억압에서 해방 무형식성과 불확정적인 추의 형식원리 이상적인 육체적 양식에 대한 거부와 해체	비정형화된 신체 왜곡 기형적인 형태 변형 인공적인 조형물의 시각적 불균형
	기하조형	인공적인 기계미학의 조형미 추상적인 형태의 순수조형 기하학적 구성체계를 통한 형태미학의 창조	신체 이미지를 기하학적 완결체로 형상화 입체적이며 비구조적인 조형적 형태 기하조작의 인위적인 조형물
의미론적 차원	애브렉션	신체의 비천함을 은유적으로 표상 주체성 상실과 모호한 경계이미지를 비천한 여성의 신체 이미지로 대상화	혐오스런 소재의 환유적 표현 공포스럽고 그로테스크한 외관을 시각화 왜곡된 비천한 신체이미지의 상징적 재현
	하이브리드	서로 다른 대상물의 혼합과 공존 반증적 미의식의 창출 탈 장르 탈 중심 현상	이질적 요소의 의도적인 부조화 신비하고 기괴한 외형 이미지 극단적인 역설과 대조의 탈 구성적 형태
	파생실재	전의식 세계와 가상 정체성을 현전으로 제시 실재와 허구와의 완전한 융화 잠재된 무의식 세계를 은유적으로 가시화	초월적인 상정의 형상화 극사실적으로 조작된 모조물의 배치 초현실적 현상의 은유적 형태
실용론적 차원	정서적 이미지	작가 내면의 감성과 이념이 상징적인 의미체제로 전달 작품에 내재적 상징요소가 의미적으로 함축	심리적인 감성의 상징적 표상 상징화된 가상의 신체 이미지 역설적 의미를 감성적으로 표현
	교감적 이미지	작가와 감상자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연계에 의해 내적 의미작용이 공유 상호 교감된 의미작용으로 기호체계가 실현	이질적인 요소의 은유적 표현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조형적 형태 가상세계를 상징하는 조형미의 재구성
	시적 이미지	작품의 의미체계에서 표출되는 미학적 기능 상징적으로 표현된 시적 감수성에 의해 심미적인 미적 가치가 공유	기호매체가 심미적으로 표상 미적 외관을 상징하는 신체 이미지 미학적인 기호요소의 시적 표현

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Judith Shea는 작품 《블랙 드레스, 1982》에서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신격화된 여성의 미적 가치를 심미적인 기호체계로 표현하였다.

현대 예술의상에서 표현된 시적 이미지는 작품의 기호요소를 상징적으로 부각시켜 미적인 감수성을 가시화하기도 하는데 미적 형태로 재구성된 이러한 조형적인 예술의상은 새로운 형태의 심미적인 미적 가치를 시각화함으로써 시적인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표상된다. 이상과 같이 기호학적 관점에서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V. 결 론

현대 예술의상은 과거의 회화나 조각작품에서 보여지던 부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의상 자체가 주된 표현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예술가들은 의상을 예술활동의 매개체로 차용하거나 담론의 텍스트로서 의미전달 하면서 다양한 체계와 방법으로 의상을 조작, 변형하거나 설치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의상언어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종합 연구의 <제2보>로서 기호학적 관점에서 현대 예술의상을 텍스트 분석하였으며 비교 분석된 객관적인 결과를 근거로 Charles Morris의 기호과정에 의한 세 가지 차원 즉, 통사론적 차원, 의미론적 차원, 실용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의 조형성을 도출함으로써 그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사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은 개방된 구성형태의 공간 확장과 비정형적인 형태 왜곡, 과장된 기하 조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공간 확장은 공간 개념의 변화로 인해 신체 영역이 외부 확장으로 전환되어 탈육체화가 시도되었으며 가상세계를 통한 시공간의 자유로운 상호관입으로 신체부재 현상이 재현되었다. 형태 왜곡은 여성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에 대한 거부와 해체로서 무형식성의 비정형화된 신체 왜곡과 인공적인 조형물의 시각적 불균형이 창출되었다. 기하 조형은 공간 구성의 기하학적 구성체계를 통해 인공적인 기계미학의 조형적 형태가 창조되었으며 신체 이미지를 기하학적 형태로 제시하여 3차원적 공간의 조형적 완결체로 형상화하였다.

둘째, 의미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은 상징적인 의미를 은유적인 기호로 표현하는 삶과 죽음으로 대상화된 신체의 애브젝션과 탈 문화적인 현상의 하이브리드, 초실재의 파생 실재로 나타났다.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애브젝션은 주체성이 상실된 여성의 비천한 신체 이미지를 다층적이고 은유적으로 표상하여 공포스런 외관을 상징적으로 재현하였으며 혐오스런 소재를 시각화하여 여성의 정체성을 열등한 존재 가치로 대상화하였다. 하이브리드는 서로 다른 대상물의 혼합과 공존으로 반증적인 미의식을 창출하였으며 극단적인 역설과 대조로 형상화된 탈구성적 형태와 신비하고 기괴한 외형 이미지로 다원적인 정체성을 가시화 하였다. 파생 실재는 전의식의 정신세계와 가상 정체성을 현전으로 제시하여 초현실적 현상을 은유적인 형태로 대상화하였으며 실제와 허구와의 완전한 융화로 꿈과 환상, 무의식의 신비세계를 의미론적으로 표상하였다.

셋째, 실용론적 차원에서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조형성은 작가의 감정과 이념의 의미체계를 전달하는 정서적 이미지와 내적 의미작용을 공감시키는 교감적 이미지, 미학적 기능의 심미적 표현을 공유하게 하는 시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현대 예술의상에 표현된 정서적 이미지는 작가 내면의 감정과 이념이 의미체계로 전달되어 심리적 감성이 상징적으로 표상되었으며 역설적 의미를 감성적으로 가시화한 내재적 상징요소가 시각적으로 대상화되었다. 교감적 이미지는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은유적인 표현이나 가상세계를 상징하는 조형적인 형태구성을 시각화하여 물리적 심리적 연계에 의해 내적 의미체계가 상호 교감되었다. 시적 이미지는 작품의 의미체계에서 미학적인 기호를 생성하여 미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심미적 외관을 상징하는 신체 이미지를 시적인 표현으로 연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예술의상을 텍스트 분석하기 위한 자료선정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분석자료 선정에 있어서 서구작가 작품으로만 한정된 점과 자료수집에 있어 분석 대상의 작품수를 한정된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예술의상의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미적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최근 관심의 대상인 예술의상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호학적 측면에서 예술의상의 상징적인 의

미체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 분석의 방법을 다른 관점의 기호학적 분석 방법론으로 논의함으로써 예술의상의 심층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정현식. (2000). *De Stijl의 공간확장 개념이 유럽 합리주의 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Florence, M. (2000). *Art &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Ltd.

Kristeva, J. (1980). *Pouvoirs de l'horreur*. Paris: Ed. du Seuil.

Rebecca, A.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N.Y.: I.B. Tauris.